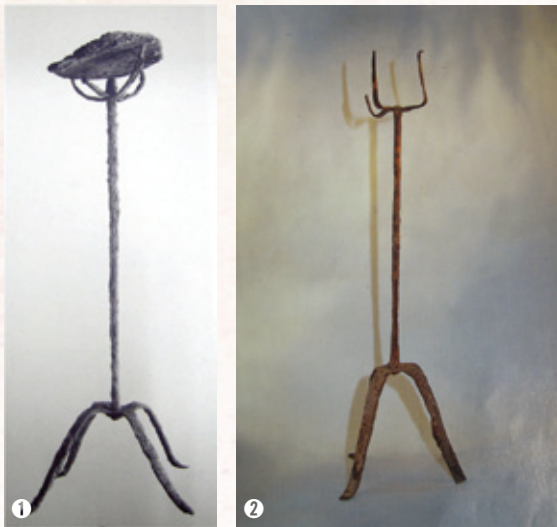


삼국시대 : 등잔 추정 이형토기 등울[篝臺], 정료대(庭燎臺)



일제강점기 대구 비산동(飛山洞) 삼국시대 고분군에서 철제로 된 등울 2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이 철제라서 많이 부식되긴 했지만, 전체 형태를 가늠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등울은 ‘구대(篝臺)’라고도 하며, 등잔을 받치기 위한 살대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물건을 일컫는다. 등기구 가운데 그리 흔한 유물은 아니지만,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매우 오랜 기간 사용된 등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연원이 모닥불이나 화에서 기능적으로 발전한 형태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또 하나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정료(庭燎)이다.



정료는 요즘 사극(史劇)에서도 더러 볼 수 있듯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관청이나 궁궐의 뜰에 피우던 화춧불의 하나이다. 궁궐이나 관청뿐만 아니라 불교의 사찰이나 유교의 서원, 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등장하는 제나라 환공(桓公)처럼 밤새 불을 밝혀놓고 인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정료지광(庭燎之光)’이라는 고사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관청 뜰에서 햇불을 드는 사람으로서 정료간(庭燎干)을 두어 노역을

사진 ① 토철제등울[篝臺] / 삼국시대 - 신라 / 대구 비산동 출토 / 朝鮮總督府 編,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 古蹟調査報告>, 1931 / 대구박물관 소장


사진 ② 대구박물관 철제등울 전시 모습

※ 이 등울은 대구 비산동 30호분의 1호 돌덧널과 2호 돌덧널에서 출토되었는데, 등잔을 받치기 위해 만든 살대의 뒷면 받침대 모양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③ 철제등울[篝臺] / 조선시대 / 높이 85cm / 한국등잔박물관 소장



시킨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에 여럿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실외 조명 방식의 하나로 널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찰에서 쓰이는 정료대는 ‘노주석(爐柱石)’ 또는 ‘불우리’라고도 부르며, 정료대 위에 관솔불이나 송진을 태워 경내를 밝히기도 한다. 정료대는 석등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높이 1~1.5m 정도의 4각 내지 6각 또는 8각 기둥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료대의 상부석은 원형의 사발 모양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④ 소수서원(紹修書院) 정료대[庭燎臺] / 조선시대 - 중종37(1542)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 / 필자 촬영(2007.8.3)
 사진 ⑤ 고산서원(高山書院) 경행사(景行祠) 앞 정료대[庭燎臺] / 조선시대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34 / 필자 촬영(2013.8.9.)
 사진 ⑥ 고산서원 경행사 앞 정료대의 상부석 윗면 모습
 사진 ⑦ 통도사 대웅전 앞 정료대[庭燎臺] / 삼국시대 - 신라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조선총독부장관, <조선총독도보> 1916.
 사진 ⑧ 해인사 대웅보전 앞 정료대[庭燎臺] / 통일신라시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 해인사성보박물관 자료제공